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 시편 98(97),1,2-3ㄱ-3ㄷ-4(◎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 1요한 4,7-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5,9-17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이었던 포도나무의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뜻을 오늘 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건네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 새로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언제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며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들을 종이 아닌 당신의 친구로 대해주십니다. 친구란 서로의 약함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받아들이며 자유로운 대화와 동행이 가능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눈길은 늘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고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

셨듯이 하느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당연히 그것을 실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계명의 실천은 그저 지워진 의무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의 수행은 짐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보다도 인격적인 행위이기에 자유롭게 드러나야 합니다. 명령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은 먼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어 누구나 예외 없이 당신 사랑 안에 머물도록 초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이들로 뽑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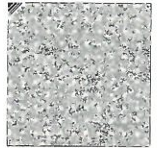
DMZ 군부대 성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살아온 삶도 생각도 개성도 다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친 DMZ 국제청년평화도보순례길은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길을 함께 걷기까지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이들이 손잡고 사랑을 느끼며 걷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길을 봉사자로 함께 걸으며 바라본 청년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자 안젤라 | 가톨릭사진가회



유용 베네딕토 | 서울시의원

어머니는 종교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면 저는 먼저 눈물이 납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지식한 교육자로 융통성이나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저에게 큰아들로서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를 걸고 엄격하게 대하셨던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는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무엇이든 다 용서하시고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도 늘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큰 애물단지’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하고 속상해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아마도 어머니는 저에게 줄 아침 해장국을 끓이시며 당신 속도 같이 끓이셨을 겁니다. 곁에서 저를 지켜보시며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셨겠죠. 제가 건너왔던 암흑 같은 시간 안에서 하느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제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더욱더 그립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저를 배웅하시며 “아들, 난 항상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응원해주셨고, 제가 세상 일에 힘들어할 때도 “엄마는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하단다.”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위암도 거뜬히 이겨내셨던 어머니이시기에, 항상 그렇게 제 옆에 웃으며 함께 계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현듯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하고, 속태워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모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

하면서 그 위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겹쳐보곤 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성모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며, 위로 받으셨겠죠. 그렇게 항상 저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지? 아들. 난 언제나 네 편.”

가끔 아내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늘 ‘제 편’이셨던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곤 마음 한구석 조용히 아들들을 질투해봅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네 편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위로의 말을 들을 수도, 곁에서 볼 수도 없으니 그 그리움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가 직접 느끼게 해주셨던 저의 어머니가 제게는 마치 종교와도 같이 여겨집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펄리 1.21

이문진 데보라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서울관구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질문을 선정하여 게재됩니다.

❗ 집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셋집이 나 월셋집도 축복 받나요?

교회에는 성체성사를 비롯한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준성사도 있습니다. 성사와 달리 준성사는 청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영적 효력에 차이가 납니다(전례헌장 60항 참조). 축복은 준성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복으로 받는 은총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교우분이 새신부님께 차 축복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 차가 본당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화단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새신부님의 효험(?)이 형편없다고 수군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심에 도움이 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물과 사물에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온갖 사건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축복을 청하여 받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3항 참조). 그리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건물을 얻은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라 여기며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4항 참조). 중요한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우리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행 예식서는 새 집 축복 예식에 입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새 집 축복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복예식서 477항).

그러므로 전셋집, 월셋집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대궐같은 기와집을 얻었다고 해도, '왜 이것 밖에 안 주시나요?' 하는 마음으로 축복식에 참석한다면, 남들이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집에 살면서도 하느님께 깊이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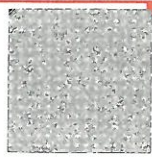
하며 축복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받을 은총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 성물 축복이 궁금합니다. 목주, 성상, 십자가 등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아야 한데, 성화, 이콘도 축복을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어떤 것은 축복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수류탄에 축복을 받아야 할지 말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성화나 미사포는 기도할 때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축복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헛갈려서 질문하신 것이겠지요.

결론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신심을 북돋아 주는 물건들'은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께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신심의 표시로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목주처럼 손에 붙잡고 기도를 위하여 쓰시는 성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 집에 모셔놓은 성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축복 예식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심 행위는 어떤 것이든 이에 관한 교회의 법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를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주는 관습으로 인정한다. 전례 기도나 신심 행위를 위하여 목주나 이와 같은 다른 물건을 사용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축복받는 것이 좋다."(축복예식서 1137항) 따라서, 기도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시는 작은 성화들, 미사포, 스키타라 등 신심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기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 가령 무기 등은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정 추기경님의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 추기경님 장례 기간 동안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자가 아닌데도 명동성당에 오셔서 조문해 주신 분들과 타종교지도자들, 문 대통령

령님을 비롯한 정관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정 추기경님의 진면목을 새롭게 조명하고 보도해 주신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뜨거운 사랑으로 정 추기경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 주신 교우 여러분, 수도자와 사제, 주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백신 나눔 운동은? | 교황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백신 보급을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성금 액수는? | 성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해인이 종료되는 2021년 11월 27일까지 ‘백신 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비신자 참여 가능).

①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②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문의: 02)774-3488).**

소식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2008년 5월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교구장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지홍삼 개인전: 1전시실
조선영 개인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2일(수)~17일(월)

명동대성당 나눔교리 봉사자 모집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봉사해 주실 나눔교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5월15일 매일 세번째(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명동) 4층 413호

2) 유가족 대상별 소모임

대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이별한 가족
때: 매주(목) 18시30분~20시30분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민족의 해와 일치를 위한 1269차 미사(‘내 마음의 복벽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5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웅진, 해주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북한지역 교회자료 정리 봉사자 모집: 누구나 지원 가능, 역사 전공자 우대 / 문의: 02)753-0815

2021 노인주일 제정 기념 신앙 수기 공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제정하신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일을 기념하여 신앙 수기를 공모하려 합니다. 공모기간: 6월6일(일)까지 / 시상내용: 사랑상, 믿음상, 희망상(총48명, 총상금 2천3백2십만원)
문의: 02)727-2385~6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enior.or.kr) 참조

공모 자격 및 부분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중 ① 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한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 ②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원)생 및 성인 신자(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 수도자, 사제 포함)
공모 주제	손녀들과 함께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조부모 수기)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성장한 나의 신앙 이야기(손녀 수기/그림)
공모 요령	수기: 원고 분량 A4 4매 이내(손글씨로도 응모 가능) 그림: 어린이(2009년생부터 가능) 8절 도화지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6월2일~10월2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5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이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catholic.or.kr) 회원전용-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c@seoul.catholic.kr)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온라인	010-4241-1210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5월16일(일) 13시30분	본원(미아리)	010-9816-0072(pddm.or.kr)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매주(화) 20시~22시	온라인(Zoom)	010-9304-0295(www.mercedarias.kr)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15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6월6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5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이 몸신학 피정

때: 5월21일(금)~23일(일) 2박3일 / 회비: 8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명창) / 대상: 40세 이하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매일 넷째주(일) 5월23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카카오톡 '성서모임 열린미사' 검색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5월14일~17일·5월28일~31일·6월11일~14일
·6월25일~28일·7월23일~26일·7월30일~8월2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성경완독	6월11일(금)~19일(토)
효소단식	6월24일(목)~27일(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5월16일~19일, 6월7일~10일, 6월13일 ~16일, 9월6일~9일, 9월12일~15일
자연순례 피정	5월22일~24일, 5월28일~30일, 6월19일 ~21일, 7월23일~25일, 7월30일~8월2일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
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성음악 클래식기타 교육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화요일, 수요반 14시~16시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 / 모집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원서접수: 5월3일(월)~16일(일) / 면접일: 5월28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 유아, 특수, 직업특수,
진로진학, 평생 / 모집: 5월3일(월)~16일(일)
면접: 5월28일(금) 18시30분 / 문의: 02)2164-
4173, 4176, 4787(https://ged.catholic.ac.kr)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람·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최 신앙 강좌

강좌: 배광하 신부와 함께하는 신앙산책 학교(20강좌)
내용: 미사, 신앙애, 상처와 치유, 고통과 부활, 성경 등
대상: 모든 신자 누구나(선착순 80명) / 문의: 02)337-8588
때: 6월1일~8월10일 매주(화) 15시~17시
곳: 꾸르실료 회관(마포구 합정동) / 회비: 10만원

제8기 영성독서 지도사 과정 모집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독서를 적용한 사목활동
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 문의: 02)3447-0750
가톨릭 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일반독서, 인문독서, 영성독서(각 과정 5주)
때: 5월13일부터 매주(목) 14시~16시
곳: 청담동성당 / 회비: 각 단계별 2만원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세~21세(고등 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월·5월·9월 입학 가능 /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원3동)
문의: 02)833-0930(dybosco@daum.net)

2021년 후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상: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및 석사
과정 1학기 이상 이수자 /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
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포함), 노인
복지학과(장기요양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포함)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문의: 02)2258-7723(dpt6010@catholic.ac.kr)
홈페이지: https://welfare.catholic.ac.kr
모집기간: 5월3일(월)~16일(일) / 면접일: 6월4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국악성가 반주 장구	중급 매주(목) 15시30분, 초급 매주 (수) 15시30분·매주(목) 13시30분
국악성가캠프	9월3일~5일(2박3일)
국악성가연구소 월례기도	매일 둘째주(토) 14시

학교밖청소년 모집 및 성인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문의: 02)382-5652
내용: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
목공·연극·영상·사진·댄스·제과제빵 등) / 회비 없음
자원봉사 모집: 검정고시 / 수능준비 수업 멘토링
곳: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U역촌동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5월12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모님 발현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5월13일(목)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인미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041)950-1008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명상심리치유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에너지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	5월17일~7월19일 매주(월)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 문의: 010-9295-5912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여성상담, 검사(진로·
심리), 화상(Zoom), 전화상담 가능 / www.dstcoun.net
소장: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서울주보 '알림' 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 3

황은영, 송주희 지음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유아부 | 112쪽 | 1만원
문의: 서울대학교 가톨릭 청국장 사이트
(www.catholicshop.or.kr)

주일학교 및 가톨릭 유아교육기관 선생님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쉽고 재미있는 유아 신앙교육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다. 어린이들이 전례와 성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활동 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활동지를 부록으로 구성했다.



신간

나의 태양은 어디에
길을 찾는
한 사제의 신앙 묵상

이창영 지음
분도출판사 | 192쪽
1만5천원 | 문의: 02)2266-3605

이 책은 이창영 바오로 신부의 묵상집이다. 책에서 독자들은 삼십 년 동안 사제의 길을 걸은 한 사람의 묵상과 성찰을 마주할 것이다. 또한 일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 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pbc TV 신규 프로그램 안내



‘엄마가 엄마에 대해 묻고 엄마에 대해 엄마가 답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선포 기념 <성가정 특별기획 제1탄 모든 가정의 기둥이자 우리 사회의 기둥인 엄마에 대해 말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흐뭇한 엄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톨릭이 말하는 착한 엄마, 좋은 엄마,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빛과 소금이 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소개하고, 그런 엄마가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아이를 다 키운 엄마부터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한 엄마까지 각양각색의 엄마들 4명과, 엄마도 아니면서 온갖 훈수를 다 두는 Father 김광두 고스마 신부(서울대학교 압구정동 성당 부주임)와 함께 가톨릭 교회의 대한민국 엄마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방송 : 5월 12일(수) 오전 8시
수 8시 | 목 13시 | 일 20시 | 화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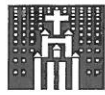


‘2021년 봄, 안방에서 만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회’

고품격 음악회를 안방 1열에서 만나보세요! 정오음악회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 최양업홀에서 열리는 시리즈 음악회로 매년 봄 7회, 가을 7회 금요일 정오에 열리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의 해설로,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성악과 첼로, 목관 앙상블 등 청중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 생명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방송 : 5월 13일(목) 23시
목 23시 | 토 13시 | 수 1시 | 목 8시

제2181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맹회장 : 지명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초등부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봉사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

문의 : 010-9224-3330

◎ 주일학교 등록제

대상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반디2지구(장애아부)

등록비 : 10,000원

문의 : 초등부 교감 (010-9224-3330)

중고등부 교감 (010-7148-1577)

반디 교감 (010-5091-1509)

◎ 2021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교리시작 : 4월 17일(토) / 304호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9935-6091)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수요일, 금요일 06시 미사

문의 : 최윤희 아네스 (010-4538-5665)

◎ 사무실 휴무 안내

5월 19일(수)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양원성당 성전건립기금 모금 현황

약정 총인원	214명	약정 총액	125,974,050원
일시납부 약정	129명		32,888,050원 (현금봉헌 2,988,050원 포함)
월납부 약정	85명		93,086,000원

※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5. 2.)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99	752	1,447	45.3%	42.9%	34.2%	32.2%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4월 26일~5월 2일)

누 계 894,878,761원

◎ 감사헌금 (4월 26일~5월 2일)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삼십만원
윤미영 이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익 명 삼십만원
김동욱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5주일)

교무금 17,170,000원

주일헌금 5,055,500원